

‘새미르통신’ | ‘새미르’는 ‘옹화회상’과 ‘미륵’을 뜻하는, 전법성지 ‘신옹동’의 ‘신옹(新龍)’에 대한 순 우리말 표기이고, ‘통신(通信)’은 초기 교단의 소통을 담당했던 불법연구회 기관지 ‘월말통신’에서 모셔왔습니다.

외부환경에 대한 민감성은 진화의 조건 | 원불교정책연구소 환경분석분과에서는 출가교역자의 사회 흐름과 교단 파악에 도움을 드리고자 ‘새미르통신’을 발행합니다. 본지는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중범위의 시사적 주제들로 구성되며, 1~2개월 주기로 교화단보와 함께 배포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연구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공부하다

최령한 유정물로서 인간은 누구나 ‘행복(幸福)’을 지향하며 살고자 합니다. 아무리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삶이 병고, 가난, 우울, 억압 등으로 점철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미덕으로 여겨지는 ‘행복’의 조건은 단일하게 규정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삶, 즐거운 삶, 보람 있는 삶 등에 대한 기준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불교 교역자들은 교법에 대한 특별한 믿음과 세상의 보은자로 살아간다는 사명감으로 남다른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대산종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앙과 수행에 투철한 교역자는 ‘대종사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이 회상을 폐셨다고 생각하며(『대산종사법문집3』, 법훈편, 204)’, ‘내가 만일에 대종사를 뵙지 못하였으면 어떻게 되었을까(『한울안 한이치에』, 법문과 일화, 마음공부, 49)’ 하는 경행감(慶幸感) 속에서 교단의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행복을 주관적인 감정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태도는 인간의 공통적 속성을 간과한 채 상대주의적 관점만을 옹호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생물학적 동종(同種)으로서의 신체적 유사성과 더불어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문화적·문명적 동질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들 사이의 욕구와 욕망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고, 행복에 대한 객관적 기준의 제시도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입니다.

선천시대에는 행복의 기준이 초월적 가치와 연관되었습니다.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운명 혹은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세계이해를 도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질개벽의 후천시대가 열리면서 행복에 대한 관념이 바뀌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연은 더 이상 신성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인간이 넘지 못하는 운명의 벽도 거의 소멸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그 결과 이제는 현세주의적 가치에 기반을 둔 외연적 풍요가 행복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물질개벽 세상에서 정신개벽 가치를 추구하는 전무출신에게 과연 행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교단은 이들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고민과 실천을 해야 할까요? 〈새미르통신〉 25호에서는 ‘전무출신의 행복’을 화두로 삼아 보았습니다.

1. 행복에 대한 세속적 통념

-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행복의 조건은 역시 ‘물질적 풍요’ 일 것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자면 1930년대 국민총생산(GNP)과 국내총생산(GDP) 계정이 최초로 등장한 이후로 개발과 성장은 소위 ‘잘 사는’ 선진국과 ‘못 사는’ 후진국을 나누는 기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직 경제적 요인으로서 좋은 나라와 나쁜 나라를 구분하게 된 것입니다.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 내에서 생산활동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 또는 최종 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지표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뜻하는 ‘국민총생산(GNP)’ 지표가 주로 쓰였지만, 지금은 경제의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민 여부에 상관없이 국가 내 생산활동에 초점을 맞춘 ‘국내총생산(GDP)’ 지표가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GDP는 한 나라의 경제수준을 가장 단순하게 보여주는 지표이지만 GDP의 증가가 반드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을 심대하게 파괴하는 막대한 규모의 개발행위는 GDP를 증대시키지만 국민의 삶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유사한 예로 한 번에 상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공사를 하지 않고 매번 따로 도로를 뜯었다 복구했다 하게 되면 그 때마다 GDP는 계속 증가하지만, 국민들은 교통혼잡, 소음, 먼지 등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 현실에서 부(富)는 행복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합리화 논리로서 부자의 악덕과 불행을 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험 세계에 살고 있는 개인들은 본능적으로 부가 가져다주는 행복의 조건들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자의 불행은 어쩌면 그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한 품성이나 환경에 기인한 것일 뿐 부 자체가 원인이 된다고 보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 부는 단순히 상품을 구매할 능력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능력을 제공해 줍니다. 부유한 사람은 한 마디로 주위의 물적·인적 환경을 통제할 수 있지만,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주위의 환경에 순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해고하고, 사업을 시작하거나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부유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노동력을 팔기 위해 부유한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복종하며 억압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부유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여가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심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고, 자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경제적 자유뿐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도 금력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선거자금이 필요한 현대정치에서 부자들은 공천권을 손쉽게 따내어 정치권력을 직접 손에 넣기도 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 역시 ‘돈은 곧 자유’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내 빚을 다 갚고 다시 자유로운 몸이 될 수만 있다면 나는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라고 토로하며 육체적 자유보다도 우위에 설 수 있는 경제적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도스토예프스키의 부에 대한 칭송이 자유에 대한 갈망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일 뿐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를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얻는 충족감마저도 부를 획득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단언하는 그의 사고 속에서 우리는 물질적 풍요의 힘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통념에 대한 성찰

- 물질만능주의를 뒷받침하는 논리 속에는 물질적 빈곤의 참상이 보여주는 뚜렷한 이미지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난민, 거처할 곳이 없어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노숙자, 일을 찾지 못해 시름에 잠긴 실업자 등을 상상해 보면 물질적 요인이 행복의 절대 조건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러나 물질의 소유에는 한계효용체감 법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100만원을 벌었다 해도 자신의 재산이 100만원인 사람과 1000만원인 사람 그리고 1억원인 사람이 느끼는 만족감은 전혀 다릅니다. 즉, 재산이 늘어나는 대로 그만큼 행복이 증진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부를 축적한 상태가 되면 더 이상 물질적 요인은 행복의 조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스털린의 역설(Paradox of Easterlin)

1974년 미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이 주장한 이론으로 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르고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소득의 증가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일본 사례를 통해 1950년대 이후 국민소득이 7배 높아졌지만 행복감은 높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근래에는 '발전의 역설(the progress paradox)' 이 제기되어 이스털린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수십 년 전과 경제규모가 커진 오늘날을 비교하니, 오히려 경제적 풍요의 혜택을 누리는 오늘날 불만은 많아지고 행복감은 낮아졌습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들은 경제성장으로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정부의 정책 목표와 방향이 보다 포괄적 의미의 삶의 질 증진으로 수정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이 때문에 성인들께서는 어리석은 중생의 맹목적 물질추구를 늘 경계하셨습니다. 대산 종사님께서는 ‘일생의 행복과 영화를 누리기 위한 인간의 모든 영위는 인간의 흥망성쇠와 만물의 성주괴공의 자연 법칙과 질서에 따라 모두가 전환되거나 소멸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모두 허망스럽기가 꿈결과 허깨비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유위법에 집착되지 말아야 한가롭고 진실하고 자유로운 생활이 되어서 현실 극락을 누릴 것이라 (『대산종사법문집5』, 연도수덕, 무심결 中)’ 하셨습니다.
- 우리사회를 돌아보더라도 경제적 성장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소득 수준은 2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국민소득 6000달러 수준인 페루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소득은 늘었지만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1980년대보다 낮아졌고, 신체수명은 79살로 크게 늘었지만 ‘행복수명’은 겨우 38살에 불과해 인생의 절반 이상을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산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진정한 행복의 측정



- 최근 행복의 잣대로서 ‘성장’의 신화가 깨짐에 따라 경제적 성취에 더하여 인간의 사회적·문화적·심리적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살피려는 ‘행복경제학’이 제기되고 있고,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려는 ‘대안지표’들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경제적 지표들이 국민의 삶의 개선 수준을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공통 인식 속에서 심신의 건강, 교육의 질, 비경제적 헌신, 가족의 평안함, 일의 즐거움과 같은 가치적 측면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춘 대안적 지표의 대표적 사례로는 부탄의 국민총행복지수(GNH: Gross National Happiness)가 많이 거론됩니다. 이 지수는 1998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지그메 싱기에 왕추크(Sigme Singye Wangchuck) 부탄 국왕의 국정 철학을 담아 구성되었습니다. 비록 60만의 인구를 지닌 작은 나라에서 만든 지표이지만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7년 OECD에서도 GNH를 이용한 국제 조사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 부탄의 GNH는 국민경제에서 생산되는 산출물이 사회적으로 필요한지 또 바람직한지를 따지기 위해 심리적 웰빙, 건강, 시간활용, 교육, 문화, 공공정책, 생태계, 지역사회 의 생명력, 생활수준 등의 9개의 핵심 영역을 다룹니다. 즉, 행복이란 이 영역들에서 충분한 성취를 이룬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부탄의 모든 정부 정책과 사업은 이 틀에 의해 심사되고 실행이 결정됩니다. 올해 GNH 국제 조사에 따르면 정신적 풍요를 중시여기는 부탄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더불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경제와 사회의 진보 수준을 측정할 지표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연구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를 비롯한 세계적 석학들이 함께 연구하고 있는 ‘대안 GDP’ 지표입니다. 이들은 물질적 생활 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정치적 참여, 노동조건, 사회적 관계망, 환경, 사회경제적 안정 등을 포괄한 새로운 사회발전 지표 작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4. 행복 증진을 위한 교단 혁신



- 앞서 살펴 본 ‘물질적 풍요 = 행복’이라는 통념과 그에 대한 성찰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대부분의 출가교역자들은 본질적 가치를 통해 행복을 성취하고자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겪는 문제를 상대적으로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때로는 일반인들과 정반대의 편향성을 만들기도 합니다. 즉, ‘욕망의 축소 = 행복’이라는 종교적 통념에만 충실한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행복 = 물질(소유)
욕망’의 행복방정식을 이해하는 사람은 결코 분자인 물질만을 키우려하거나 분모인 욕망만을 축소하려 들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욕망과 물질을 함께 관리하면서 어느 쪽의 가치도 소홀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 현재 교단적 관심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교단혁신의 과제는 ‘이단치교의 확립’, ‘교역자 제도의 개선’, ‘전무출신 복지 확대’라는 세 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대 과제의 종국적 목표는 명실상부한 튼튼하고 행복한 교단을 이루는 것입니다. 즉, 이상과 현실이 유기적으로 통합되고,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발전하고, 정신적 삶과 물질적 삶이 조화롭게 양립하는 풍토를 형성하기 위해서 교단의 정책과 제도는 혁신되어야 합니다. 요컨대, 언뜻 보면 대립적일 수 있는 가치들을 아우를 수 있을 때 행복은 구현될 수 있습니다.
- **이단치교의 확립:** 원기 100년을 앞두고 교단이 처한 산적한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안별 대응에 급급하기보다는 ‘조직구조의 선진화’라는 특단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대종사께서는 시방 세계(十方世界) 모든 사람을 두루 교화할 십인 일단(十人一團)의 단 조직 방법을 제정하시고 ‘이 법은 오직 한 스승의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을 고루 훈련할 빠른 방법이니, 몇 억만의 많은 수라도 가히 지도할 수 있으나 그 공력은 항상 아홉 사람에게만 드리면 되는 간이한 조직이니라. (『대종경』, 서품 6장)’고 하시어 교화단을 교단 기본조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는 일사불란한 통치와 유연한 자치의 통합이라는 이상을 현실적으로 구현한 방안으로서 교단 구성원들이 신바람 나게 공부와 사업을 병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 **교역자제도의 개선:** 대종사께서는 ‘사람은 만물의 주인이요 만물은 사람의 사용할 바이며, 인도는 인의가 주체요 권모술수는 그 끝이니, 사람의 정신이 능히 만물을 지배하고 인의의 대도가 세상에 서게 되는 것은 이치의 당연함이어늘 …(『대종경』, 서품 5장)’이라 하시며 사람의 지위와 역량을 신뢰하셨습니다. 모든 조직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인적 자원에 투자해야 하는 까닭도 바로 이러한 인간의 가능성과 능동성 때문입니다. 출가 교역자 공동체 내부에 차별적 요소가 존재한다거나, 자기발전의 기회를 얻지 못해 소외감을 느끼는 구성원이 존재한다면 행복한 교단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 **전무출신 복지 확대:** 심신 간 건강 그리고 경제적 자력은 삶의 안정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특히 우리 교단은 열린 시대에 발맞춰 출세간 생활을 지양하기 때문에 전무출신이 겸약과 청빈의 삶을 살지언정 일반적 삶의 조건들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력은 인격이요 권리요 행복이요 건설이요 건강입니다 … 정신 · 육신 · 물질의 삼방면에 완전한 자력자가 되자는 것입니다(『대산종사법문집2』, 신년법문, 사요실천)’라는 대산종사님의 말씀을 따르더라도 인간다운 삶은 자력양성 없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지원에서 노후보장까지 전무출신에 대한 광범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삶의 안정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교단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나아가는 길은 바로 우리 교법 속에 있습니다.** 누구나 행복을 찾고 행복을 나누며 살 수 있는 교단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법정신을 되새기고, 교단정책을 통해 전무출신들의 삶 속에 관찰시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단혁신이 ‘행복’의 가치를 지향하고, 이를 통해 전무출신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우리 회상의 존립 이유는 더욱 확고해 질 것입니다.

■ **전무출신 한 사람의 행복은 단지 개인의 행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법을 증명하는 길이자, 교화현장을 꽂피우는 길입니다.
원불교 100년대를 열어가고 개교의 동기를 실현할 힘의 원천인 것입니다.

